

전북의 수산가공식품 알리는 소통채널 마련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분부는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협력, 전북지역의 어촌, 수산가공식품을 알리는 소통채널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박종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센터장 이석훈)는 지난 10월 27일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전국 10개의 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생상회에서 서울특별시와 국내 어촌지역의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 공동사업으로 나서기로 했다.

상생상회는 지역특산물, 관광, 귀농, 귀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역상생교류 거점 공간으로 전국 각 지역의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우수한 대표 농, 특산물을 홍보, 판매까지 하

는 상생교류,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전담기구로서 어촌마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 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판매, 유통·홍보지원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북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5월 1일 해양수산부, 전국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 전북 어촌특화지원센터 홍보물 및 어촌지역 특산물을 비치해 전북지역의 어촌 및 수산가공식품을 알리는 소통채널을 마련, 어촌지역의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

한편,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북 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상호 협력하여 잠재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 이를 실현, 확대하기 위한 교류협력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사업비는 연간 5억원(국비 50%, 도비 50%)으로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를 비롯, 전국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2016 지정 (전남, 경남), 2017 지정(강원, 충남), 2018 지정(경기, 전북, 경북, 제주, 인천, 부산)으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은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며, 이날 업무협약식은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해양수산

부, 전국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 전북 어촌특화지원센터 홍보물 및 어촌지역 특산물을 비치해 전북지역의 어촌 및 수산가공식품을 알리는 소통채널을 마련, 어촌지역의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

한편,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북 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상호 협력하여 잠재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 이를 실현, 확대하기 위한 교류협력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휴면예금 찾아주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휴면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안내장 발송, 유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으로 고객은 전북은행의 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해당 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잊고 있었던 금융자산을 돌려 드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중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고객 본인의 금융정보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내 계좌 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공동으로 추진해 운영 중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이 지난 6일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 행사'를 열었다.

“변화에 발맞춰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할 것”

전북지방우정청,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 행사 펼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6일 전북지방우정청 1층 실버카페에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스트페이 결제시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체 '카페우정'은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전북1호 가맹점이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카페로, 카페를 찾는 고객들은 포스트페이 또는 우체국체크카드를 결

재하면 금액할인도 받을 수 있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포스트페이 간편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로 가맹점신청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면 되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없는 포스트페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에 발맞춰 상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우체국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소상인의 바람직한 롤모델 널리 알린다

정읍 백년가게 릴레이 현판식... 업체의 성장스토리·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청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2018년도 소상인 백년가게로 선정된 전북 6개 가게의 릴레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6일에는 정읍 3곳(정읍낙시, 제일스포츠, 해화당한약방)을 대상, 백년가게 선정 가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소상인의 바람직한 롤모델로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장정보를 통한 전북중기청장 주재의 현판식 행사를 했다.

이날 정읍시 위치한 3개 가게(수성동 정읍낙시, 제일스포츠, 해화당한약방) 백년가게 현판식에는 전북중기청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전북지회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참석, 자리를 빛내고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또한,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을 비롯, 주요 내빈들이 가게 대표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 업체의 성장스토리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8.22 발표) 설명도 이어졌다.



소상인 백년가게로 선정된 정읍시 '제일스포츠'.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오늘 현판식을 갖은 정읍시 3곳의 백년가게들은 30년 이상 한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우여곡절 속에 나름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극복한점 부분들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잘 지원하고 보존해 나가겠다"며, "현재 전북에 6곳 백년가게가 선정, 발굴됐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우수 소상인 백년가게를 발굴, 육성하

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선정되는 백년가게에 대해서도 현판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도소매, 음식업) 또는 가업을 이어 받아 운영 중인 한우물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부가 금년도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김영태 기자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전북은행, 낙수지역아동센터서 '희망의 공부방' 오픈식

책상·의자 지원·책장·사물함·LED전등 등 교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6일 전주시 중노송동에 위치한 낙수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

부방 제75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이정영 전북은행 부행장, 송형섭 전주시청지점장, 노시

형 사회공헌부장, 최용철 전주시의회 의원, 최규종 노송동장, 유은진 낙수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지난달 4일 전주풍납초등학교에서 열린 '제8회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에서 공부방 지원을 약속했으며, 공부방에 다소 불편한 책

상과 어두운 조명 등 내부환경 개선이 필요한 낙수지역아동센터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에게 적합한 책상과 의자 지원, 책장, 사물함, LED전등 등을 교체하여 아동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조성했다.

특히, 송형섭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장은 직원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지

역아동센터에 방문해 나눔을 실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동들의 희망 멘토가 되기로 약속했다.

이정영 전북은행 부행장은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되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은행은 아동들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